

## 2008~2009년 상반기 미국 지상파 및 케이블, 범죄수사 드라마와 리얼리티 쇼 강세

미국 드라마를 일컫는 말인 ‘미드’가 유행된 지 벌써 몇 년째다. 예전 <A 특공대>나 <맥가이버> 같은 미국 드라마가 수입되어 인기를 끈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화제가 된 적도 없었으며, 미국 CBS의 유명 범죄수사 드라마인 <CSI-Las Vega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삼 미국 드라마의 재미를 알게 된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이제 수십 편의 미국 드라마 홍수 속에서 ‘미드’를 미국 시청자들만큼이나 빨리 시청하고 있다. ‘미드’ 말고도 ‘일드’라고 해서 일본 드라마의 인지도 역시 <꽃보다 남자>나 <결혼 못 하는 남자> 같은 일본 드라마가 원작인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같이 상승 중이다.

### 한국 드라마가 갖지 못한 그 무엇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 보는 TV 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그 형태만 해도 사극·월화 드라마·수목 드라마·주말 드라마·미니시리즈·아침 드라마 등으로 나뉘며, 장르도 멜로뿐만이 아니라 코믹·액션·수사 드라마·퓨전 사극까지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 투입된 대작 드라마가 탄생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외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막장’ 논란이다. 소재의 진부함, 불륜, 상식의 파괴, 패륜, 지나친 우연성,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내세워 욕을 먹으면서도 시청자들을 끌어들

이는 ‘막장 드라마’들이 그동안 인기를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방송국과 작가, PD, 그리고 연기자들까지 ‘막장’임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소재가 자극적으로 변해 온 데는 ‘시청률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 때문일 것이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들이 사랑과 배신의 과정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뻘한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권선징악의 결말로 귀결되는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들을 잠시 동안 TV 앞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결국 그 형식에 식상한 시청자들이 장면과 내용의 빠른 전개와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소재들로 무장한 미국 드라마에 빠져들게 한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드라마 제작 현실이 예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해도 에피소드 한 편 제작에 100만 달러 이상도 투자하는 미국 드라마에 대항하는 것은 마치 1990년대 한국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대항했던 것처럼 무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미국 드라마를 ‘찾아서’ 시청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요구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로 하여금 인기 미국 드라마들의 최신 에피소드들을 수입하여 방송하게 만들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 이외에도, 미국의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나 토크쇼 등이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미국 케이블 채널 Bravo TV의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Project Runway>가 한국 버전인 <Project Runway Korea>로 제작되어 케이블 채널인 온 스타일에서 방송되는 등, 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현재 미국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중에서 인기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현황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는 향후 수입될 수 있는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기간은 2008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이며, Nielsen Television Ratings<sup>1)</sup>와 TV Week<sup>2)</sup>의 시청률 조사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라임 타임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다. TV

Week의 자료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프라임 타임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편성뿐만 아니라 Top 10 케이블 네트워크의 시청률까지 참고할 수 있다.

### 2008년 상반기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현황

미국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채널의 2008년 프로그램 시청률을 분석해 보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리얼리티 쇼와 각종 드라마가 강세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시청률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American Idol>(리얼리티 쇼, NBC)의 절대 강세 속에서 <Dancing with the Stars>(리얼리티 쇼, ABC), <Dear or No Deal>(게임 쇼, NBC), <Two and a Half Men>(시트콤, CBS), <Grey's Anatomy>(의학 드라마, ABC), <Lost>(미스터리 드라마, ABC), <House>(의학 드라마, Fox), <Criminal Minds>(범죄수사 드라마, CBS), <CSI>(범죄수사 드라마, CBS) 등이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시청률 조사 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프로 스포츠의 플레이오프 시즌의 중계방송도 여전히 인기였다.

1월 초에는 일요일에 방송된 <NFC Playoff>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인 가운데 <Law and Order: SVU>(범죄수사 드라마, NBC)와 <Criminal Minds>(범죄수사 드라마, CBS), <Grey's Anatomy>(의학 드라마, CBS), 그리고 <Ghost Whisperer>(멜로드라마, CBS)가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이때는 <American Idol> 새 시즌이 방송되기 전이었다. 1월 말과 2월 초는 미국 프로풋볼의 <Super Bowl XLII>이 예상했던 대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American Idol>은 등장하자마자 화요일, 수요일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 이후 <American Idol>의 강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평균 시청률은 10%대를 상회하고 있다. <American Idol> 이외의 리얼리티 쇼로 ABC 방송의 <Dancing with the Stars>가 시청자들의 눈길

1) Nielsen Television Ratings for Primetime: Season-to-date 참고

(<http://tvratings/zap2it.com/ratings/season.html>).

2) TV Week의 시청률 조사 아카이브 자료 참고

(<http://www.tvweek.com/ratings/archive>).

을 잡으며 <American Idol>의 뒤를 뺄까 좇고 있는데, 12명의 연예인들과 전문 댄서들이 짝을 이루어 댄스를 배우며 매주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포맷이다. 역시 10%대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tvN이 신동엽을 내세워 선보였던 <Yes or No>의 오리지널 격인 머니게임 쇼 <Deal or No Deal>은 시트콤인 <Two and a Half Men>과 함께 월요일 시청률 수위를 다투고 있었고, <American Idol>의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들은 위에서 언급된 드라마들이 번갈아가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미국의 TV는 <American Idol>과 <Dancing with the Stars> 외에도 여러 가지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이할 점은 <American Idol>과 <Dancing with the Stars>가 Fox와 ABC의 고유 프로그램 포맷이 아니고 각각 영국의 <Pop Idol(ITV)>과 <Strictly Come Dancing(BBC)>의 포맷을 빌려왔다는 데 있다. 2002년 시작한 <American Idol>이나 2005년에 시작한 <Dancing with the Stars>는 영국에서 포맷을 빌려왔으나 프로그램 고유의 특징을 잘 살려 계속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등 미국에서 장수하고 있다.

또한, 춤(Dancing)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이 2008년 상반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Dancing with the Stars> 외에도 Fox의 <So You Think You Can Dance>(댄스 경연대외 리얼리티 쇼) 역시 앞선 두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라마의 경우, 2007년 드라마 작가들의 파업과 배우들의 파업 동참으로 시청률이 잠시 주춤했으나 파업 종료 이후 제자리를 완전히 찾은 모습이며, 미국 드라마의 특징인 경찰(예를 들면, CSI), 의사(House, Grey's Anatomy), 특수요원(NCIS, Without A Trace, CBS)들이 주인공인 범죄수사 드라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오래된 수사 시리즈물인 <NYPD Blue>나 <Law and Order>와 다르게 요즘의 미국 수사 드라마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편집과 비주얼, 그리고 매우 세밀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섬세함이 돋보인다. 예를 들면 <CSI>의 경우, <CSI New York>, <CSI Las Vegas> 그리고 <CSI Miami> 등 세 가지 스핀오프(spin-off)들이 현재까지 방송 중인데 각 작품마다 고유의 분위기가 화면 색감의 차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심리와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CSI Las Vegas>의 경우 어둡고 우울한 색이, 화려한 Miami를 배경으로 하는 <CSI Miami>는 오렌지 색감의 화면이, 그리고 <CSI New York>에는 New York이라는 대도시의 차가움을 대변하는 푸른 빛의 화면색이 많이 쓰인다. 시작은 <CSI Las Vegas>에서 했으나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차별화를 시도, 시청자들의 호감도가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세 작품 모두 시청률 면에서 성공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House>와 <Grey's Anatomy> 역시 배우들에게 단순히 의사 가운만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들의 생활임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리얼리티를 살리는 데 그 노력을 다하고 있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케이블 채널의 경우, 많은 채널 수와 프로그램들로 인해 시청률이 높이 나와도 5%를 넘지 않고, top 10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청률 면에서 top 10에 들었던 TV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꾸준히 그 이름을 올리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USA의 프로레슬링 경기인 <WWE RAW>가 4월 말까지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었으며, USA에서 방송하는 코믹 범죄수사 드라마 <Monk>와 CNN의 심층취재물 <Anderson Cooper 360°>도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은 <SpongeBob>(Nick) 역시 토요일 오전이라는 시간대의 특성상 많은 어린이 팬을 확보하며 선전하고 있었다.

드라마의 경우 케이블에서는 Top 10 리스트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드라마 장르가 인기 없던 것은 아니었다. 프라임 타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케이블 네트워크 순위를 보면 USA, TNT, A&E, 그리고 Spike 등 드라마 전문 채널들이 상위에 있었고, 따라서 케이블을 통한 드라마 시청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그램들은 역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들로 NBA와 WWE, MLB, 그리고 Football 게임 중계는 주로 케이블을 통해 시청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프로야구나 축구, 혹은 농구나 배구의 중계를 시청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케이블이 스포츠 경기의 중계를 대체하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 2008년 하반기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현황

2008년도 하반기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9월 21일 진행된 제60회 프라임 타임 Emmy상(Primetime Emmy Awards) 시상식에서 수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2008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의 TV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과 그 특징을 살펴본 다음, 2008년 8월 이후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TV Week에서 제공하는 주간 프라임 타임 시청률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Emmy상의 수상 결과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가늠하는 척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상작들의 한국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제60회 Primetime Emmy상의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들을 보면, 드라마 부문에서는 1960년대 뉴욕의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쟁을 그린 케이블 채널인 AMC(American Movie Channel)의 <Mad Man>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코미디 부문에서는 지상파 NBC의 <30 Rock>이, 미니시리즈 부문에서는 미국 2대 대통령인 John Adams의 일생을 그린 케이블 HBO의 <John Adams>가 작품상을 차지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최우수 작품상은 AXN의 <The American Race>가 <American Idol>을 제치고 수상했고, TV 영화 부문은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현 대통령이 부시가 엘 고어 후보를 재개표 (Recount)를 통해 당선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Recount>가 수상했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들보다 케이블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강세를 띤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프로그램들과 수상 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mmy상 수상작과 한국에서의 흥행작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Emmy상 수상작이라 해도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BO의 Entourage의 경우 이번 Emmy상 수상자를 낼 정도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반향을 끌지 못했다. 반대로, '석호필' 신드롬을 일으켰던 <Prison Break>, 한국계 여성 배우 산드라 오가 등장하는 <Grey's Anatomy>, <CSI> 시리즈 등은 Emmy상과는 인연이 없었고 <Grey's Anatomy>와 <Lost>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 드라마 <House>의 경우는 이번 Emmy상에서 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외과의사 봉달희>, <하얀 거탑> 등의 의학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음을 감안한다면 전문직 사회를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MBC의 <종합병원 2>가 시즌 3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점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다.

한편, TV Week에서 제공하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국의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을 기준으로 본 2008년 하반기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상파의 경우 CBS의 <Two and a Half Men>(시트콤)과 <Ghost Whisperer>(멜로드라마), 그리고 <Criminal Minds>(범죄수사 드라마), NBC의 <Deal or No Deal>(리얼리티 게임쇼)과 <America's Got Talent>(리얼리티), Fox의 <So You Think You Can Dance>(리얼리티)와 <Bones>(범죄수사 드라마), 그리고 <House>(의학 드라마)를 들 수 있다. 케이블의 경우는 TNT의 <Closer>(범죄수사 드라마)와 <Saving Grace>(범죄수사 드라마), USA의 <Burn Notice>(액션 드라마)와 <NCIS>(범죄수사 드라마), CNN의 <Anderson Cooper 360°>(심층취재/시사), Fox News Channel의 <O'Reilly Factor>(시사), 그리고 Nick의 <Sponge Bob>(애니메이션)가 현재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국 드라마의 주 소재로 등장하는 경찰, 정부 첩보요원, 군인, 소방관, 기타 정부 요원 등의 활약상을 담은 범죄수사 드라마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의학 드라마의 경우 <Grey's Anatomy>의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지만 Fox의 <House>가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 예전 NBC의 <ER>부터 이어온 의학 드라마의 인기를 계속하여 잇고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전문직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직종들에서 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소재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드라마 구성상 갈등과 그의 해소를 통한 완결구조를 선호하는 보수적 시청자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NN의 <Anderson Cooper 360°>, 그리고 Fox News Channel의

<O'Reilly Factor>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시사 문제에 관한 미국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 두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11월 초 오바마 후보 당선 이후 이 두 프로그램은 시청률 순위에서 밀리고 있었다. 또한 두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의 인기도 시청률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NN의 Anderson Cooper와 Fox의 O'Reilly는 성향이 진보적/보수적 색채가 분명한 매체가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개인적 성향도 구분된다. 젊은 층과 여성 시청자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Anderson Cooper와 백인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O'Reilly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비교적 충성도 높은 시청 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09년 상반기 미국 방송 프로그램 현황

2009년 상반기 미국에서는 여전히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CSI>류의 범죄수사 드라마가 강세였고, 방송국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은 CBS, 케이블 방송은 드라마 중심 채널인 USA와 TNT에서 편성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Top 10에 들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라임 타임대 Top 20 프로그램의 면면을 보면 우선 전통적인 강세 프로그램인 <American Idol>(FOX)과 <Dancing with the Stars>(ABC) 등의 리얼리티 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지상파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직 리얼리티 쇼로 봐야 할 것이며, 특히 <American Idol>과 <Dancing with the Stars>는 시즌이 거듭되면서도 새로운 에피소드와 스타를 탄생시키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Top 20위권 내에는 이들 이외에 CBS의 <Survivor: Gabon>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검증 받은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리얼리티 쇼의 등장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BS의 인기 범죄수사 드라마인 <CSI>는 9번째 시즌을 맞아서도 프라임 타임대



Top 10 프로그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CBS의 또 다른 범죄수사 드라마인 <NCIS>가 6번째 시즌을 맞으면서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NCIS>는 6번째 시즌이 케이블에서 방송중이다. 범죄수사 드라마의 인기는 매우 뜨겁고 또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Top 10에는 2008년 시작한 <Mentalist>(CBS)가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고, Top 20위권으로 넓히면 <Criminal Mind>(CBS), <CSI: Miami>(CBS), <CSI: New York>(CBS), <Without a Trace>(CBS), <Eleven Hour>(CBS) 순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징을 보면 모두 CBS에서 편성·방송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CSI>와 스핀오프 작품인 두 CSI(Miami & New York)와는 차별되는 범죄수사 드라마를 제작해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Law & Order>(NBC)로 대표되는 미국의 범죄수사 드라마의 전통은 오히려 현재에 와서 더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첨단과학과 결부된 새로운 형태의 수사, 영화를 보는 듯한 화면 편집, 첨단기기의 등장 등 과거의 전통적 수사물에서 한층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얼리티 쇼와 범죄수사 드라마를 제외하면 일요일 밤에 방송하는 풋볼 방송(NBC), 드라마 <Desperate Housewives>(ABC), 시트콤 <Two and a Half Men>(CBS)가 Top 10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의 상반기 인기 프로그램의 유형 역시 범죄수사 드라마와 프로스포츠 중계로 요약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에 케이블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으로는 <The Closer>(TNT), <Burn Notice>(USA), <Monk>(USA), <NCIS>(USA) 등의 범죄수사 드라마들이 있다. 골든 글로브 수상에 빛나는 <The Closer>와 <Monk>는 시즌이 거듭되면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 <CSI>와 같이 장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Burn Notice>도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NCIS>의 지상파에서의 강세는 케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내내 Top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프로스포츠 중계의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USA의 프로레슬링 프로그램인 <WWE RAW>와 TNT의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NASCAR>, 그리고 얼마 전에 종료된 NBA 플레이오프와 결승전 중계가 상반기의 인기 프로그램들이었다. 프로스포츠 중계는 그 특성상 시청률의 기복이 심한 편

인데, 특히 플레이오프나 결승전이 진행될 경우는 전체 시청률 순위를 모두 차지하는 데 반해 일반 경기들은 빅 매치가 아닌 경우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가운데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상위에 랭크된 스포츠 프로그램은 <WWE RAW>로, 어느 정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경기이지만 잘 짜인 대립 구도, 화려한 볼거리와 가십거리들로 인해 케이블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케이블 방송의 특성상 범죄수사 드라마와 프로스포츠 중계를 빼면 여러 프로그램이 Top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Nickelodeon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Sponge Bob>이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하는 <Sponge Bob>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 시작한 의학 드라마 USA의 <Royal Pain>이 전체 Top 10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Nickelodeon에서 방송하는 어린이 드라마 <iCarly>도 순위에 빠졌다 들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와 한국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영향

#### 1. 미국식 소재를 한국화하여 제작하는 것의 한계

미국의 경우 현재 갖가지 소재의 리얼리티 쇼와 드라마가 주로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을 올리는 데 공헌하고 있는데, 그 소재의 특성상 한국에서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American Idol>의 경우는 한국의 방송 3사에서 신인 가수 또는 신인 개그맨 발굴을 위한다며 몇 번 시도했던 프로그램들에서 이미 그 포맷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다지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merican Idol>의 인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뢰성 높은 심사위원들이 그 인기에 높은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들은 현재 대부분 톱스타가 되어 있다. 이는 오리지널인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톱스타가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방송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

고 무자비한 평가를 내리는 심사위원들의 덕이 크다.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예선전도 한몫을 한다. 여러 면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 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리얼리티 쇼인 점을 감안하면 오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리얼리티 쇼의 위험성은 오히려 크다. 대중적으로 누구나 수긍하는 심사위원들과 실력 있는 아마추어들의 경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지금의 <American Idol>과 같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Dance>가 호응을 얻는 미국식 문화가 한국에도 잘 정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까지 사교댄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점도 선뜻 한국에서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작년 MBC <무한도전>에서(확실히 Dance with the Stars의 포맷을 빌려온 것 같다) 연예인들과 프로 댄스스포츠 강사들의 조합이 어느 정도 성공한 점을 볼 때 가능성 있는 포맷이 아닌가 생각한다.

드라마의 경우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soap opera와 사극이 대세인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범죄수사 드라마를 제작하여 성공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론 의사가 중심인 드라마의 성공이 그 전망을 밝게 하고는 있지만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아직까지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전문직이 배경인 드라마들, 즉 경찰, 군인, 소방관, 청와대 경호관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의 성공사례는 찾기 어렵다. 문화적인 면에서 'Officer'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미국식 드라마 따라 하기는 위험하다. 또한 CSI 급의 디테일을 살릴 수 없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도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Emmy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한국의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무조건 미국식 프로그램 포맷 혹은 소재를 따라가거나 방송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미국 드라마나 코미디물을 수입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건 방송 프로그램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담고 있고 다른 문화권에 수출될 때는 그 효과가 반감하는 '문화적 할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HBO의 <Entourage>나 NBC의 <30 Rock>은 전형적인 미국식 드라마로 대사가 산만하고 한국과는 낮은 사회적 환경에 등장인물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흔치 않으며 주제가 매우 가벼운, 즉 한국의 프로그램들과는 매우 다르다.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

계가 있는 <CSI>나 <House>, 혹은 <Prison Break>류의 미국 드라마들은 구성 면에서 친숙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해 보면, 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도 그 소재를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원본을 수입하여 방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아마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 본다. 즉, 미국 방송 프로그램들은 한국에서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을 대체한다기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프로그램의 소재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소재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틈새시장으로 분화하여 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식 포맷을 일정 부분 적용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직수입하여 방영하는 것보다 포맷을 구매하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나타난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다. <America's Got Talent>나 <American Idol>, 혹은 <So You Think You Can Dance>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은 SBS의 <스타킹>을 들 수 있다. 스타와 일반인이 짝을 이룬 팀들이 경쟁하는 ABC의 <Dancing with the Stars>의 경우는 MBC의 <무한도전>에서 비슷한 형태의 에피소드를 제작한 적이 있고, NBC의 <Deal or no Deal>과 같은 게임 쇼 포맷은 케이블 채널인 TvN에서 신동엽의 <Yes or No>가 포맷을 따라 한 사례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소재의 차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사전 조사 없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방향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 2. 전문적 드라마의 인기 vs. 폭력물의 인기?

미국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이렇게 범죄수사 드라마가 성행한 역사가 있었는지 찾고 싶을 정도로 현재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강세는 강력하다. 진부하고 전개가 느린 예전의 범죄수사 드라마와 달리 최근의 시리즈들은 프로파일러·수학자·생물학자·법의학자 등의 새로운 직업을 내세운 드라마들로 전문화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스피디한 전개와 과감한 액션 등으로 영화 못지않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시리즈도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

도 있어 당분간 미국에서 범죄수사 드라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ER>(NBC), <House>(FOX) 등의 의학 드라마 중 Top 12위권에 머물러 있는 <Grey's Anatomy>(ABC)만이 현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시작한 <Royal Pain>의 향후 추세를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추세는 '전문직+액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범죄수사 드라마에 의사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전통적 형사'가 아닌 직업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폭력과 어느 정도의 선정성에 길들여진 현재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범죄 드라마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거기에 새로운 인물상을 추가하여 기존 범죄 드라마가 가진 에피소드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수사 드라마 일색인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크다. 범죄수사 드라마의 인기는 시청률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즉 폭력과 선정성이라는 소재를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직 중에서 유독 폭력이나 선정성과 맞닿아 있는 직업군이 인기라는 점은 범죄수사 드라마가 사회적 '대세'라는 점보다는 그저 방송국을 비롯한 제작자들의 시청률 확보에 이은 돈벌이 의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작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굳이 거브너(Gerbner)의 계발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폭력물의 수입으로 인한 시청자의 불안감과 사회의 폭력성 인식의 과잉에 대한 우려도 프로그램 수입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드라마와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199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시작한 미국 문화의 수입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거의 모든 채널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외국 문화의 수입이 장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너무 미국 프로그램들로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 역시 당연한 것이다. 미국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2008~2009년 프로그램 현황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생하기보다 특정 트렌드의 점유율

확산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거의 모든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보다 자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작성 : 이양환(경희대학교 강사, yanghwanlee@gmail.com)